

# 강진군, 서울서 직거래 장터

### 시중보다 30% 저렴한 가격, '생동미' 시식회도 백미·잡곡·된장·고추장 등 호응 얻어 완판



강진군 공동면사무소가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상도4동 주민센터 일원에서 공동산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이날의 농산물 직거래 행사는 10년 전 공동면과 상도4동의 인연으로부터 시작됐다. 과거 2009년 6월 18일 공동면과 상도4동은 자매결연을 맺었으나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절됐다. 이에 두 지역간의 소원해진 관계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9년 9월 24일 공동면이 팸투어 행사를 열고 상도4동 주민들을 초청한 바 있다.

이번 공동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상도4동 주민들의 강진 팸투어시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나온 아이디어로 공동면과 상도4동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다양한 품목이 선보여졌다. 백미, 잡곡, 표고버섯, 파프리카, 배추, 생강, 작두콩, 여주 등의 농산물과 직접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 들기름이 판매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판매 현장에는 이용현 공동면장, 이재석 지역발전협의회장, 김은주 이장단장을 비롯한 공동면

의 생산 농가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유희남 상도4동장과 직원들 직능단체회원들도 동참해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됐다. 김상현 재경 공동면향우회장과 회원들이 발 벗고 나서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하는 등 공동면과 상도4동, 재경 공동면향우회까지 3개의 기관단체가 혼연일체로 강진 농산물 판매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 훈훈함을 전해왔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날 장터에서는 시중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진행됐으며 공동면에서 생산한 쌀 '생동미'로 현장에서 밥을 지어 시식회도 열렸다. 맛을 본 주민들은 밥맛이 뛰어나다고 큰 만족감을 표했으며 시식회에서 호평이 곧바로 구매로 이어져 매출 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 추운 날씨에도 구매 인파가 물리면서 오후 5시경에 공동면이 준비한 쌀 1천 포대와 24개 품목의 물품 모두 완판돼 6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용현 면장은 "직거래 장터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 돼 매우 기쁘다. 1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직거래 장터를 꾸준히 운영해 공동면 농민과 상도4동 소비자와의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진도 구기자, 액상스틱 등 가공 제품 신규 출시



진도군에서 구기자를 활용한 가공 제품이 새롭게 출시됐다.

진도군은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진도 구기자를 휴대와 먹기 편하고, 장기간 보관하면서 섭취할 수 있는 액상스틱, 농축병, 구중구포 등 3종의 가공제품을 개발·판매를 시작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제품명 '진도 구기자 365'는

진도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기술개발과 상품화 등을 지원했다.

특히 우수한 효능의 진도 구기자를 소비자들이 쉽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상품화를 세심하게 추진했다.

진도 구기자 365 제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판매 예정이며, 농축물 병 제품은 진도군 관내 카페 등에 공급해 구기자차로

판매되고 있다.

진도 구기자는 몸에 좋은 성분인 베타인, 제아잔틴, 루틴, 다양한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동맥경화와 고혈압과 빈혈·시력감퇴 예방, 간 보호 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등의 우수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07년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어 전국 생산량 20%를 차지하고 있는 진도 구기자는 현재 300여 농가가 30ha에서 연간 4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농산물 가공지원팀 관계자는 "진도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구기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고품질의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완도군, 한국-인도네시아 청년창업 토론회 참석

### 양식기술 제공 등 수산 분야 협력해나가기로

완도군은 지난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농업, 수산, 환경 분야의 청년창업 협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당시 발표한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신남방정책 활성화와 양국 청년창업 협력 방안 마련, 우수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한경대학교, 비영리단체 A-10(Agriculture 10 Years from Now)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임태희 한경대 총장, 박민용 A-10 회장과 인도네시아 하원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제를 위한 농업·수산 정책과 한국-인도네시아 청년의 협력을 통한 농업, 수산, 환경 분야의 스타트업 확대 등

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패널 토의에서 "우리군은 한국 수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앞으로 양식 기술 등을 인도네시아 청년 스타트업에게 제공하고, 화장품과 바이오산업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해조류의 대량 양식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소비가 줄고 있는 수산물 판매를 위해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 함평군, 플라워푸드 교육장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함평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플라워푸드 교육장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관계공무원, 설계용역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개요를 포함한 경과

보고와 증별 공간구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총 사업비 14억 원이 투입되는 플라워푸드 교육장은 지역 농축특산물을 활용한 조리실습장으로, 827.48㎡부지에 지상 3층 규

모로 건립된다.

음식문화 활성화와 농업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2층과 3층에는 요리실습교육장과 144석 규모의 교육장이 각각 들어선다.

특히 군은 내년 8월 준공 전까지 총 3억 원을 투입해 실습 기자재 구입까지 마친다는 생각에서 내년 준공과 함께 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항만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특색이 묻어있는 고유의 음식문화는 곧 그 지역의 문화관광 경쟁력"이라고 전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 해군 3함대·육군 31사단 장병들의 영암서 '김장봉사 합동작전'



해군 제3함대사령부 소속 3해상전투단(이하 '3전단')이 지난달 28일 육군 31사단 96연대 장병들과 합동으로 영암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파스한 김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3전단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2016년도부터 분기마다 영암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영암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가 장병들은 하루 종일 김장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드리면서 따뜻한 마음도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